

## 20110107 미래정책연구실

## □ FAO, 세계 식품가격지수 지난해 12월 사상 최고치 기록

## 1. FinancialTimes(2011.01.05) 주요 내용

- FAO는 지난해 12월 식품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2007~2008년에 발생했던 식량위기때의 수준을 능가하였다고 발표함.
  - FAO는 월별 보고서를 통해 밀, 옥수수, 쌀, 유제품, 설탕과 육류 등 주요 55개 식품의 가격 변동추이를 산출한 세계 식품가격지수는 지난달 전년대비 4.2% 증가한 214.7포인트를 기록함에 따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.
  - 이러한 수치는 식품가격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, 아이티와 이집트에서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폭동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6월의 213.5포인트보다 더 높음.
- 식품가격지수를 높인 주요 품목은 **설탕과 육류**임.
  - 지난달 설탕가격지수는 373.4포인트를 기록함으로써 1980년 이후 최고치임.
  - 육류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141.5포인트에서 12월 142.2포인트로 증가함.
- 다른 곡물에 비해 쌀 가격은 상승폭이 적어 아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, 밀 가격의 경우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음.
- 이러한 식품가격지수의 상승으로 2007~2008년에 발생했던 식량위기가 재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.
  -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는 없지만 앞으로 식량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경우 과거 식량난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함.
- FAO 선임경제학자인 Abdolreza Abbassian은 “현재의 상황은 경고에 불과하다”며 “현재의 식품가격이 최고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”라고 주장함.

- Abdolreza Abbassian은 “폭설, 한파,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를 포함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곡물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”고 주장함.

○ 식품가격지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여름 러시아의 심각한 가뭄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중국의 급격한 수요 증가 때문임.

-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가 겹치면서 식량수급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.

○ 아직 정확한 지난해 세계 식품수입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FAO는 지난해 11월에 2010년 세계 식품수입규모는 1조 260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함.

## 2. 시사점

- 최근 ‘라니냐’현상으로 남미의 이상고온과 호주의 홍수로 인하여 주요 식품 가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.
- 지난 2007~2008년 곡물 파동 시, 식품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애플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경험에 비추어, 국제 식품가격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근 세계 식품가격 상승에 대한 장·단기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

## □ 호주, 홍수로 인해 곡류, 육류 생산 및 수출 타격

## 1. WALL STREET JOURNAL(2011.01.03) 주요 내용

- 2009년 세계 4위의 밀 수출국가인 호주는 북동부에 강타한 최악의 폭우와 홍수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의 국토면적에 버금가는 지역이 물에 잠김.
  - 이로 인해 철도, 도로 등 육상수송로가 물에 잠기면서 석탄, 밀, 설탕, 면화 등의 수출중단으로 피해가 늘어남.
  - 특히 농산물, 석탄의 생산 중심지인 퀸즈랜드와 사우스웨일드 등의 홍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국제 원자재가격을 더 부추김.

- 지난 3일 시카고선물거래소(Chicago Board of Trade: CBOT)에서 거래된 밀 선물가격은 호주의 홍수로 인해 곡물출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에서도 냉해로 인한 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.
  - 밀의 3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11.25센트 상승한 부셸 당 8.01달러로 장중하락때 8.25달러까지 상승함.
  - 이것은 러시아가 가뭄으로 인하여 곡물수출을 금지하였을 때인 8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임.
- 홍수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, 러시아,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대부분으로 수출되는 **호주산 쇠고기의 생산 및 수출차질**로 육류시장에도 지장을 줄 전망이다.
  -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업체인 브라질 JBS 호주법인의 존 베리 이사는 “퀸즈랜드 주는 호주 가축의 40%가 집중된 지역으로 쇠고기 수출의 45%를 차지한다”며 “앞으로 수개월 간은 호주 육류 수출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”라고 주장함.

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